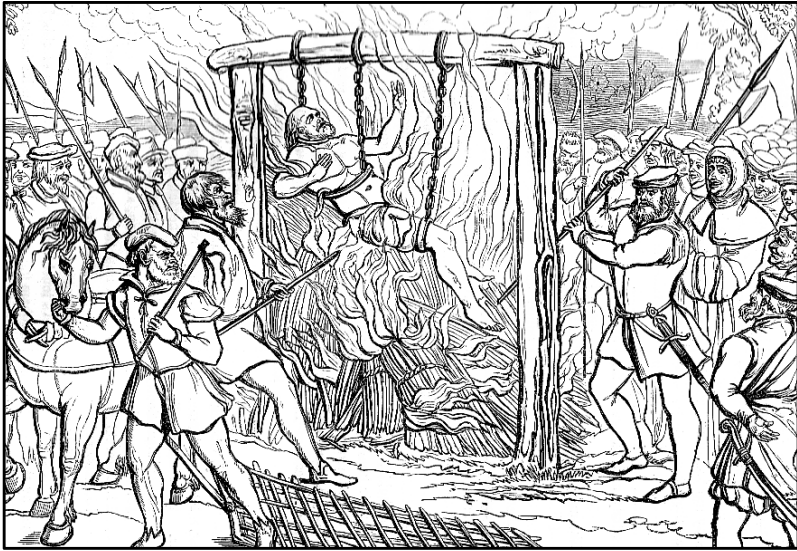


# 영국의 종교개혁과 박해



영국 최초순교자 John Oldcastle 은 가장 큰 고통을 느끼도록 서서히 태워 죽임을 당했다.

## 영국의 종교개혁 전야

영국의 개신교회는 브리튼(Britain) 교회의 후예들이다. 이 섬나라에서 처음 기독교를 설립한자가 누구인가는 전설에 싸여 있어 누구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다. 주엘(Jewel) 주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영국이라 불리는 브리튼 교회는 그 믿음을 최초에 로마로부터 받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브리튼족의 개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다. 어셔(Usher), 스틸링플리트(Stillingfleet), 고드윈(Godwin)과 같은 몇몇 저자들은 브리튼 교회를 바울이 로마 1차와 2차 여행 중간에 세웠다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후 58년경 그의 아들의 충성에 대한 인질로 로마에 7년간 억류되어 있던 카라타쿠스의 아버지 브란(Bran)에 의해서 소개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많다.

학식 있는 변증자 로마 가톨릭 교황 엘류테리우스는 브리튼의 사도였다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주장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루키우스 왕은 최초의 세례를 받은 황제이며 이 섬에서 태어난 콘스탄티누스보다 거의 15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믿음은 아리마데 요셉이나 열심당 시몬 혹은 희랍인들에 의해 오래전 이곳에 심겨졌다.” 이미 개종 된 왕이 엘류테리우스에게 앞으로 교직자의 개혁과 성직자들의 사건을 다룰 전반적인 규칙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브리튼 교회가 부활절을 축하하는 아시아적 방식을 취하는 것과 많은 점에서 로마 가톨릭의 의식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특히 세례와 팔레스타인 영향과 다른 세부적인 면에서 그 믿음은 서양 보다는 동양에서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잘 알려진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어거스틴은 브리튼과는 달리 영국 국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다. 그러나 브리튼 교회는 597년 어거스틴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세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황 그레고리 대제는 로마거리에서 본 영국 소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되고 동정심이 발동하여 그 나라를 개종시키는 데 열심을 낸 결과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보냈고 그는 그 섬나라의 전역에 로마 가톨릭의 최고권을 선포하는 기초를 닦았다.

에드가 왕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우상숭배에 열렬한 추종자로서 일년에 일요일이 있는 수만큼 많은 수도원과 수녀원을 설립했다. 색슨 연대기에는 그의 자만과 오만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체스터에서 그가 8명의 속국의 왕들을 볼모로 잡았을 때 자신의 우월성과 그들의 복종에 대한 증거로 그는 디강에 배를 띄우고 자기는 키를 쥐고 8명의 왕에게 노를 저어 궁으로 저어 가라고 명령했다.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교회는 브리튼을 교황청의 영적인 소유지로 종속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침입하기 시작했다.

## 1. 종교개혁의 새벽이 떠오르다

종교 개혁이 최초로 확실히 시도된 것은 주후 1,350년경 에드워드 3세가 즉위해 있는 동안이었다. 어두움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었고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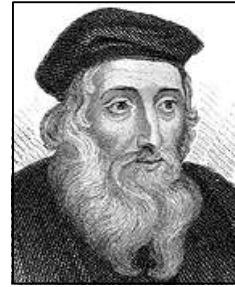
질은 어두움이 사람들을 덮고 있었다. 이때 종교개혁의 섯별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가 혼탁해진 진리의 빛을 널리 비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옥스퍼드대학의 신학 강사였고 신학과 철학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었다. 날카로운 감각과 양심적인 경건한 성품의 위클리프는 믿음에 관한 논문을 서너 권 출판했다.

교황 그레고리 11세는 이것을 본 후 정죄하며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위클리프로 하여금 그의 의견을 취소하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를 로마로 송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명령은 그리 쉽사리 이행될 수 없었다. 위클리프에게는 권력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 우두머리는 랭커스터의 공작 곤트의 존이었다. 따라서 위클리프는 공작을 대동하고 대주교의 종교회의에 출두했다. 그 때 위클리프가 심문을 받기 위해 앉아야 할 지 서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대주교와 공작사이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주교의 편을 들었고 공작은 위클리프를 데리고 돌아갔다.

이 일 후 폭동이 일어나 공작의 궁전이 약탈을 당했다. 그 보복으로 공작은 시장과 시의원들을 시청에서 쫓아냈다. 그 뒤 주교들은 다시 모였고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 성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주교들은 감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주교기관의 견책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시하고 자기의 이론을 계속 전파했고 현 사건에 큰 강조점을 둔 진리를 폭로했다. 그는 성직자들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만드는 책들을 수권 더 썼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랭커스터 공작의 보호 아래 적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효과로 인해 그 당시의 깊은 무지에 마치 개기월식 후에 첫 빛이 밝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밝은 빛을 던져 주었다. 그는 이 영어 번역판 성경에 서문을 붙였는데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정신으로 성직자들의 무지와 부도덕함을 견책하고, 성자들과 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는 데에 베뢰아 사람들을 본받을 것을 권면했다.



John Wycliffe

이때 이교도를 근절시키려는 대주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비밀리에 그러나 끊임없이 늘어갔다. 새로운 의견의 진전이 눈에 띌 만큼 빨라지자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은 그 대학 박사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공동 날인 아래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만약 사흘 뒤에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파문시키고 감금하겠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왕에게 호소할 의향이었으나 랭커스터 공작이 말렸다. 그때 위클리프는 그의 교리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요당했는데 그는 이를 거부 했다.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유럽에서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라그의 사도인 후스와 제롬도 그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에 있는 머튼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후 그리스도 교회의 교구 목사가 되었다. 수도승들의 음모로 위클리프가 배척당하자 레이체스터에 있는 리터워드에 생활권을 제공 받았는데 거기서 위클리프는 '다이얼로그스'(Dialogues)와 '트라이얼로그스'(Trialogues) 등 다른 몇 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진리를 실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 중에 위클리프는 1348년 12월 31일 목사관에서 숨지고 거기 묻혔다.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수는 자꾸 늘어만 갔다. 캔터베리 교황청에 있던 윌리엄 커트네이와 후계자 토머스 아룬델이 두 회의에서 위클리프의 교리 가운데 주요한 조항을 정리했다. 하나는 1396년 런던에서 열렸고 다른 하나는 1408년 옥스퍼드에서 열렸다. 1413년 로마에서 열린 총회에서 존 23세의 주판 아래 위클리프의 논문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의 사후 명성을 변호하고 그가 이교도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교황의 재판에 출두하라는 9개월간의 기한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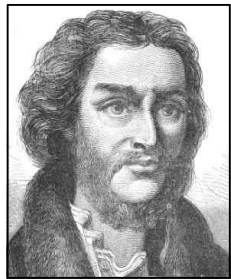
이렇게 위클리프의 책들과 교리와 사후의 명성은 원칙적으로 1414년 5월 4일 토요일에 열린 8차례에 걸친 콘스탄츠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다른 책 다른 장소에서 그가 제안한 300개의 제안과 진보된 생각

들을 회의에서 제노아 대주교가 모두 읽었고 만장일치로 정죄되었다. 그들에게 가장비위에 거슬리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제단의 성찬식에서 물질인 빵과 포도주는 물론 그대로 남아 있다. 제단의 성찬식에서 빵의 요소는 빵의 성질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스도는 어떤 물질이나 성찬식과 실제로 동일시되지 않는다. 주교나 신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임명하거나 헌신하거나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미사를 세우셨다는 것은 복음에서 증명될 수 없다. 성직자들이 이 세상 재물을 갖는 것은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일이다. 로마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다. 신부나 집사가 교황청이나 어떤 주교의 허락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합법적이다.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는 일은 마귀의 고안이다.”

위와 같은 위클리프의 주장들과 다른 많은 내용들이 모두 정죄되었다. 그 중 어떤 것은 악명 높은 이교도적인 것으로 어떤 것은 경건한 귀로 듣기에 지각이 없고 광란적이며 불쾌한 것으로 정죄되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존 위클리프는 가장 고집스럽고 뉘우치지 않는 이교도로 선포되었다.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일은 금지되었고 그의 사후 명성도 파문시키고 그의 뼈는 파내어 불에 태워서 바람에 날려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그의 시체는 파내어 불에 태운 뒤 러터워드 도시가 세워져 있는 언덕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 뿌려졌다.

## 2. 영국 최초 개신교 순교자 존 올드캐슬(코브함 경)



John Oldcastle

그리하여 코브함 경은 영국 귀족 가운데 첫 번째 저자이며 순교자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다.

1413년 헨리 5세(Henry V of England 1387-1422)가 즉위하자마자 성직자의 분노는 특히 롤러드파(Lollards, 14,15세기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존 위클리프의 신앙과 사상을 따르던 자들)로 인해 흥분했다. 그들은 롤러드파인 존 올드캐슬(John Oldcastle, 1378-1417)경 혹은 코브함 경이라는 한 귀족을 선두로 해서 반란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코브함 경은 영국 귀족 가운데 첫 번째

그는 천성적으로 상당히 재능이 있었고 문학에 능란하며 재치 있고 장식이나 기타 영역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철학을 아주 좋아해서 위클리프의 작품을 탐독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교리가 지니고 있는 진리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는 스스로 열렬한 위클리프의 제자로 가입하고 힘 닳는 데까지 재능으로 혹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 위클리프가 가르친 성경의 교리들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많은 위클리프의 작품들을 복사했다. 그는 여러 설교자들을 후원하며 떠오르는 종교개혁 지도자로 알려졌다. 물론 교회로부터의 적대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헨리 왕은 비록 자신이 그를 핍박하기 싫었지만 성직자들의 악의에 찬 선동에 못 이겨 음모를 꾸었다는 근거로 롤러드파를 핍박할 단체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클리프를 증오하는 성직자들은 롤러드들이 왕과 왕족을 성주들과 함께 살해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틈타 자기들의 종파에 우호적인 왕조를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허위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코브함 경이 세인트 자일스 인더 필즈라는 잡목과 숲으로 가려진 은밀한 장소에 20,000명을 비밀리에 모아 놓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왕이 한밤중에 그 곳에 가보았을 때 다만 80여 명의 사람들이모여 위클리프가 주장하던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왕의 군대에 의해 비인간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되었다. 어떤 사람은 포로가 되어 고문대 위해서 고문을 견디지 못해 반란 음모가 사실이라고 거짓 자백을 하고 코브함 경이 주모자로 말했다. 왕은 이 같은 거짓 자백을 근거로 코브함 경의 목에 1,000 마르크의 현상금 걸었고 그를 당국에 넘겨주는 도시는 세금을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미끼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코브함 경은 체포되었고 악명 높은 런던탑에 갇혔다. 그러나 그는 은밀한 도움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 4년 후 다시 잡혔다. 왕은 그에게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형하라는 명을 내렸다. 즉 은근한 불에 그를 구워 죽이려는 것이다. 그는 쇠사슬로 교수대에 묶여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가능한 질질 오래 시간을 끄는 고통 가운데 신부들과 수도사들의 저주 속에 죽어갔다. 신부들과 수도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코브함 경을 기도로 격려하는 것을 막으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그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

존 올드캐슬(코브함) 남작은 복음과 진리에 대한 주장을 죽기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하다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못한 펍박 자들은 의회로 하여금 롤러드파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영어 성경을 읽는 자는 누구나 땅과 재산과 재물과 목숨을 잃게 된다는 법령이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대한 이단이요 왕의 원수요 국가 반역자로 정죄된다고 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거나 용서받은 후 다시 타락하면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목이 잘릴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이단자로 불에 태워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 법령이 통과되자마자 롤러드파에 대한 불같은 박해가 시작되었다. 신부와 수도사들은 롤러드파 서너 명을 붙잡아 산 채로 한꺼번에 불태워 죽였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국외로 피신했고 어떤 이들은 편협하고 잔인한 로마 가톨릭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펍박을 견디지 못해 참된 신앙을 포기 하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

### 3. 영국 종교개혁에 불을 지른 틴데일

그 후 헨리 8세(Henry VIII of England, 1491-1547)가 영국을 다스리는 동안 브리튼은 로마 가톨릭의 오류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기간 중 독일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교리가 잘 알려져 있었고 그 교리는 영국에 재빨리 번져 나갔다. 그 교리는 그들 위클리프의 사상과 흡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사람들에게 흡수되었다.

그 즈음 영국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한심했다. 주교들은 자기 교구는 거의 방문하지도 않고 무지 가운데 빠져 무도회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은 방종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급 성직자들은 악과 범죄로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모든 것이 위기에 이르렀고 개혁이 불가피했다. 이런 중에 인쇄기의 발명과 문예부흥 여파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책이 소개되면 즉시 번역되어 출판됐고 그 책들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는 열심 있는 탐구자들에 의해 탐독되었다.



William Tyndale

그러자 개신교에 대한 격렬한 펍박이 다시 일어났다. 여섯 명의 남녀가 고난주간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어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코맨트리에서 화형을 당했다. 헨리 8세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교회의 옹호자로 나섰고 대담한 루터와 같이 신학적인 논쟁자에 가담했다. 그리고 왕의 이혼 문제로 인해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의 동맹을 벗어나 영국 교회의 독립과 왕권 우세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어 그 사건이 믿음과 실제에서 개혁의 길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되었다.

그 결과로 로마 교황청이 지지하는 울지(Wolsey) 추기경이 떨어지고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 추기경이 등용됨으로써 한층 더 진보되었는데 크랜머 추기경의 활동과 영향력은 영국 종교개혁에 활력을 더해 주었다. 이때쯤 해서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 영어로 번역한 신약성경이 출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평신도들에 의해 해석되거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성직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틴데일과 그의 동료들은 굴하지 않고 해외 안트워프에 살면서 매년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 새로운 책들을 쓰거나 번역해 내었다. 그 책들은 비밀리에 영국으로 전달되었다.

그런데 런던의 주교 톤스톨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이 되는 대로 틴데일의 성경을 많이 구입하기로 영국 상인과 계약을 맺었다. 틴데일은 이상인의 주문에 기꺼이 응하여 구판 중 남은 성경을 모두 팔아 넘겼다. 톤스톨은 그것을 모두 사들여 칩사이드에서 공개적으로 태워 버렸다. 그러나 다음 해에 개정판이 영국으로 많이 넘어 왔고 그 때 틴데일의 일행 중 한사람인 콘스탄틴이 붙잡혔다. 신부들은 만약 이 이단적인 번역판의 후원자가 누구인가를 밝힌다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자 콘스탄틴은 런던 주교 톤스톨이 틴데일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신약성경 구판이 다 팔리고 최신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다.<sup>(\*) 출처 /</sup>

기독교순교사화(존 폭스 원저, 머리 킹 편저, 생명의말씀사) < 다음에 계속 >